

정읍 매력 정수 담은 ‘3미·6품·9경’

쌍화차·한우·내장산·고택 등
음식·특산품·명소 ‘보물 369’ 선정
관광자원, 지역 브랜드화 나서

정읍시가 지역 고유의 음식과 특산품, 관광자원을 대표 브랜드로 묶은 ‘정읍보물 369’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지역 브랜드화에 나선다.

정읍시는 최근 정읍관광발전위원회를 열어 시민 제안과 전문가 심의를 거쳐 정읍을 대표할 음식 3미(味)와 특산품 6품(品), 관광 명소 9경(景)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3미’는 정읍 쌍화차와 정읍 한우, 내장산 산채 비빔밥이다. ‘6품’은 귀리, 씨없는수박, 정읍지황, 정읍 막걸리, 청명주, 정읍 자생차가 포함됐다.

‘9경’은 내장산 국립공원, 구절초치방정원, 정읍사와 달빛사랑숲,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무성서원, 용산호, 피향정, 월영습지와 솔티숲, 김명관고택이 이름을 올렸다.

‘정읍보물’ 선정은 올해 1~2월 시민 공모에 1500여 건의 제안이 접수되면서 시작했다. 이후 1차 후보군(10미, 18품, 21경)을 압축하고, 온오프라인 선호도 조사를 통해 2차 후보(6미, 10품, 15경)를 추린 뒤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전체 과정에는 시민 6400여명이 참여했다.



정읍시가 선정한 9경(景). 위쪽 왼쪽부터 내장산 국립공원, 구절초치방정원, 정읍사와 달빛사랑숲,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무성서원, 용산호, 피향정, 월영습지와 솔티숲, 김명관고택. <정읍시 제공>

정읍시는 이번 브랜드를 정읍의 정체성과 매력을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핵심 콘텐츠로 삼고,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관광 콘텐츠로 체계화할 계획이다. 향후 관광 마케팅과 지역 자원 연계사업 등에 폭넓게 활용할 방침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정읍만의 고유한 매력을 하나의 브랜드로 집약한 이번 369 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긍심과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정읍다움을 전국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 과학영농으로 기후 위기 대응

농업환경 데이터 실시간 분석 토마토·딸기 등 생육 예측 모델 구축

정읍시가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국비 4억원을 확보하고 ‘기후변화 대응 과학영농 통합관제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농가의 농업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작물생육 예측 모델을 바탕으로 각 농가에 최적화된 맞춤형 컨설팅 메시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요 대상 작물은 토마토, 방울토마토, 딸기 등 양액재배를 기반으로 하는 시설채소다.

이들 작물의 재배 환경에서 온도·습도, 토양의 온도와 수분 상태, 전기전도도(EC), 배지의 무게, 공급되는 물의 양과 배수량, 일사량 등 다양한 데이터를,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맞춤형 작물 생육 모델을 구축하고 농가별 환경제어 시스템에 반영돼 활용된다.

특히 데이터는 농촌진흥청으로 전송돼 작물별 농업환경 데이터베이스에 축적, 표준화된 한국형 스마트 농업 기술 개발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시는 관제체계 구축을 위한 설계용역을 진행 중으로 향후 프로그램 개발·플랫폼 구축과 함께 시범적인 운영을 위해 15개 농가에 데이터 수집장치를 설치하고, 11월부터는 본격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관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학영농 통합관제체계 구축사업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과학적인 농업관리 시스템으로, 농가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위탁 운영

출산부터 산후조리까지 원스톱 돌봄...이달중 위수탁 협약

남원시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탁기관으로 남원의료원을 선정했다.

남원시는 최근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청 기관의 전문성, 재정 상태, 사업 수행 능력 및 안전관리 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남원의료원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아 위탁기관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 내 산후조리원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산모들에게 전문적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선 8기 시장 공약 사업으로 전북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했다.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남원의료원과는 6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10월 개원을 목표로 홈페이지 구축 및 인력 채용 등 본격 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오진규 남원의료원장은 “모든 산모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의 신체 회복과 정서적 안정은 물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 10월 개원 예정인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조감도. <남원시 제공>

한용재 남원시보건소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남원,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이용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동리시네마서 영화 관람 ‘6천원의 행복’

어르신·청소년·군인 등 우대계층에 관람료 1000원 상시 할인

고창군 동리시네마가 사회적 우대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을 비롯해 국가유공자, 청소년, 장애인, 군인 등에 관람료를 7000원에서 6000원으로 할인해 준다.

이번 할인 혜택은 다양한 세대가 부담 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동리시네마는 지난해부터 고창문화관광재단에서 수탁받아 운영 중이다. 상영작 및 상영시간은 동리시네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우

대계층의 경우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할인이 가능하다.

동리시네마는 개봉관이 없던 지난 2014년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해소를 위해 고창을 동리국악당 지하에 작은영화관으로 개관해 2개 상영관 89석(1관 58석, 2관 31석)을 갖추고 있다.

매점과 카페 분위기의 휴게공간도 있어 연간 약 3만여 명의 군민이 찾는 지역 대표 여가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 경증치매어르신 ‘AI 돌봄로봇’ 지원

25명 6개월간 시범사용...식사·약 복용·말벗 등 서비스

남원시가 전북 지역 최초로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층에 돌봄로봇을 지원한다.

남원시는 조달청 주관 올해 ‘혁신 제품 시범 사용기관’에 남원시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경증 치매 어르신 25명에게 인공지능(AI) 기반 돌봄로봇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혁신 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지방비 부담 없이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6개월간의 시범사용 기간이 지나면 제품의 소유권이 조달청에서 시범기관으로 이전돼 총 8250만원 규모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지원되는 돌봄로봇은 식사·약 복용·개인일정 알림과 말벗기능, 모바일 앱을 통한 보호자 연계(화상통화·문자), 인지훈련 콘텐츠(게임, 체조) 제공, 응급상황 관제 서비스, 유튜브 연계 미디어(음악, 영상 등) 지원 등 치매 어르신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조달청 지원을 통해 남원지역 경증 치매노인들에게 지원될 인공지능(AI) 기반 돌봄로봇.

전북시민대학에서 자격증 취득하세요

고창캠퍼스, 수강생 모집...농업·관광·AI 활용 프로그램 등

고창군이 도내 대학들과 연계 협력해 운영하는 ‘전북시민대학 고창캠퍼스’ 수강생을 모집한다.

온라인 전북시민대학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도내 7개 대학교 캠퍼스와 협약을 통해 고창군 관내 학습장과 농수산대학교에서 6월부터 10월까지 총 11개 교육과정이 동시 운영된다.

특히 고창군은 농업, 관광, 재취업을 위한 자격 취득, AI 활용 프로그램으로 구성·공모해 도내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를 교부받았다.

농업분야에서는 한국농수산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컨소시엄으로 소득창출형 첨단 농업농기계 교육을 기획해 농기계 운전실무, 소형농기계 정비

수리, 방제드론 정비 및 방제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또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맞춤형 관광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우석대·군장대와 협약해 호텔 디지털마스터, 이미지 메이킹, 디지털 프린팅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산업인력을 양성한다.

이와 함께 인기가득인 실속형 AI활용 교육을 전주대학교와 진행하고 공통과정으로는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고창시민학,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성인 진로탐색 과정도 운영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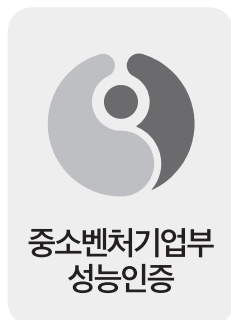
황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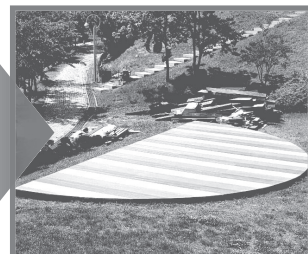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